

서울주요 대학들 수도권에 캠퍼스 건립 봇물

서강·중앙大 등 10개교 지방캠퍼스 조성 발표



서울 지역의 대학들이 속속 지방으로 향하고 있다. 과밀한 캠퍼스에서 벗어나 실속을 차리려는 대학들의 움직임은 과거 '인(仁)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대학에 상향 평가가 이뤄지던 때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다.

서울 시내에서 캠퍼스 부지를 새로이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방행을 택하는 현실적 이유일 수 있지만 각 대학들은 서울이 아닌 곳에서 제2,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실용적 노선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줄어 지방사학이 존폐의 위기에 놓인 현실에서 서울과 지방의 팽주를 동시에 노리는 포석이라는 '싱글한' 분석도 나온다. 경쟁력 없는 지방사학의 퇴출 등 사학 전반의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대학들은 신기술, 신학문의 태동으로 연구영역이 확대되면서 신조류를 수용하기 위해 영토확장을 노리면서 서울 및 지방의 특화 캠퍼스가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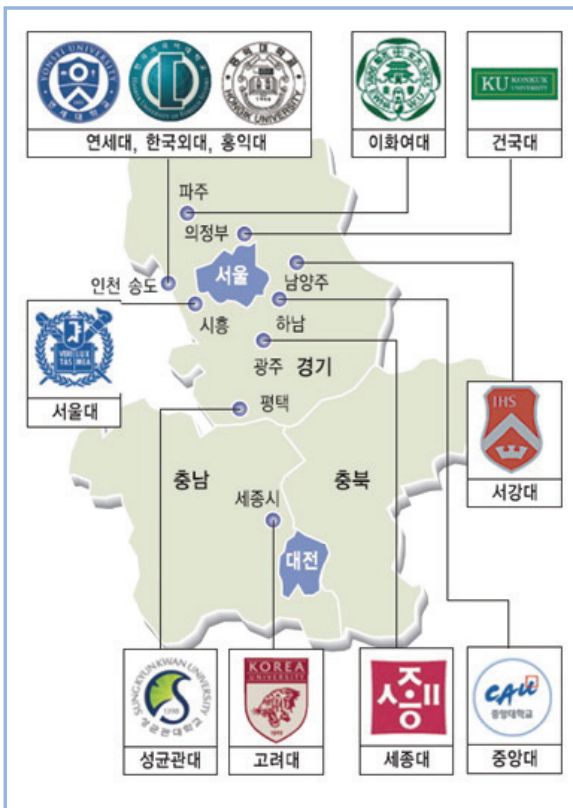
계하는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새로운 도약의 발판의 계기로 제2캠퍼스 설립됨이 이는 사이, 국공립대와 지방 사학의 존재감이 위축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구·개발 공간 확보 및 복지·영리 시설의 대형화로 부지가 필요해진 서울 소재 주요대학들이 잇달아 지방에 '특성화 캠퍼스'를 건립해 생존경쟁에 나서고 있다.

서강대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4~5년의 공사를 거쳐 2015년 남양주시

양정동·와부읍 일대 82만5000㎡ 부지에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화여대는 경기도 파주시의 미군 반환기지 캠프 에드워드 등 85만㎡의 부지에 2019년까지 국제교육센터와 연구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세종대 또한 지난 달 경기도 광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친환경 녹색에너지·육종 연구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후



제2캠퍼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는 서울과 안성 캠퍼스에 이어 제3캠퍼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안성캠퍼스를 오는 2013년까지 하남으로 옮기려는 계획과는 별도로 인천 검단에 60만~100만㎡ 규모의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건국대 또한 서울과 충주에 이어 오는 2022년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 스탠리에 74만3000㎡ 규모의 산·학·연 클러스터 혹은 글로벌 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이

다. 서울·원주에 이어 일제강치 인천 송도에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해왔던 연세대는 내년 3월 개교를 눈앞에 뒀다.

연세대는 인천에 송도캠퍼스를 조성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설립한 특수법인의 지원을 받았다. 인천시 산하 공기관과 농협 등 금융기관 등이 출자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송도국제복합단지개발이 송도캠퍼스가 들어설 국제화복합단지 시행을 맡았고 오는 3월 개교를 하였다. 그밖에 홍익대, 한국외대 등도 송도에 대학원, 연구소 중심의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화이트와 함께 사랑을 전해요! 피부에 좋은 느낌만 주세요!

2010년 3월 22일부터 47개대학에서 실시



2009년 3월부터 유한 캠퍼스와 캠퍼스 저널에서는 화이트와 함께 사랑을 전해요, 피부에 좋은 느낌만 주세요.라는 주제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대구, 부산, 광주 총 53개교 대학에서 행사를 실시하였다.

하반기 행사는 9월 7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총 28개교에서 12월 11일까지 진행이 되었다.

여대생 및 학교에서 큰 호응을 받는 행사로서 현재 여대생들의 생각도 챔피언에서 1년에 한번 만나는 친구.라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이 되었다.

특히 유한 캠퍼스는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고 또한 화이트, 좋은느낌,애니데이의 제품군의 경

우 경쟁사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브랜드 제품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더욱 더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었다.

2010년에는 유한 캠퍼스가 여자와 늘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3월 22일 고려대를 시작으로 총 47개교에서 4회차 행사가 실시 될 예정이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이런 행사가 대학생의 자율을 존중이 되는 행사이고 특히 유한 캠퍼스에서 좋은 제품을 학생들에게 공급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2010년 행사에서도 더 많은 학교에서 행사에 관한 문의, 유치를 하기위해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총학생회에서 귀뜸 해주셨다.